

140개 기업 들어설 평동 3차산단 오늘 첫 삽

첫 민자 개발 2353억원 투입 10월 선분양 예정...2019년 완공 분양가 30%까지 보조금 지원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평동산단을 최고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만성적인 공장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29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동3차 산단은 광주지역 내 산업시설의 노후화와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고, 기존 평동 1·2차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자를 유치해 추진된다.

오는 2019년까지 광산구 연산동 일원에 총사업비 2353억원을 투입해 117만8000㎡ 규모로 조성되며, 앞으로 전기·전자·금속·자동차 제조 관련 기업 140여 개가 입주해 1만1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 9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측된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남구 에너지밸리 산단과 함께 광주지역 산업용지 수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장현 시장과 김동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광산구청장, 시·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용지보상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께 산업용지를 선분양해 입주를 원하는 투자기업에 적기에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여러 개의 산단 조성사업과 함께 국내의 우수 기업을 광주 산단에 유치하기 위해 이전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분양가의 30% 이내의 입지보조금과 14%의 설비투자금을, 관외 이전 기업의 경우 분양가의 20% 이내의 입지보조금과 5% 이내의 설비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 100억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장현 시장은 "평동3차 산단이 조성되면 광주가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기업이 입주하고 싶은 일류 산단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배려하는 마음은 세대 차이 없어요”

(사)희망나무-문성고 멘토링·의료 봉사

광주지역 대표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폭넓은 사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문성고 학생들은 'Youth Hope Tree'(청소년 희망나무, 회장 서영광 1년)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었다. <사진> 1학년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희망나무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좋은친구, 무등, 무지개 등 3곳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영광 회장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친구, 형제같은 존재로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하며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 주말과 연휴 등 여가시간을 활용해 (사)희망나무와 연계한 의료활동에도 참여한다. 문성고 학생들은 지난 26일 희망나무 회원들과 함께 영광대학교를 방문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에 손을 보았으며, 앞으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희망나무 관계자는 "봉사가 어른들의 몫으로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광주정신의 계승발전도 가능할 것이다"며 "성적 중심의 학교 생활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또다른 경종이 됐다"고 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 내달부터 광주평생교육원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전파하는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은 광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마을공동체와 생활 속 민주·인권을 실천하며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광주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시민 5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라면 시민활동가(시민교육 강사)가 어디든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배달 강좌이다.

교육내용으로는 ▲광주 정신과 광주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형성 방법, ▲광주정신과 문화예술 총 3개 주제가 있으며, 이 중 1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강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기획운영팀 담당자(062-600-5222)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80여 명의 시민활동가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올해 역시 초·중·고교, 대학,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행복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광주시민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씩트는 봄 (사)푸른길(이사장 김길수)은 28일 푸른길공원 계림동 구간에서 '푸른길가드닝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푸른길가드닝데이는 봄나무보양작기를 주제로 새싹을 틔움 나무들의 상태를 살피고, 거름을 주는 한편 화초류의 생육을 방해하는 잡초도 제거했다. <푸른길 제공>

광주, 농림부 지원 후계농업인 최다 선정

특·광역시 93명 중 24명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선정해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에 광주지역에서 3년 연속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농업인이 선정됐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특·광역시 선정자 93명 중 26%인 24명이 광주지역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24명, 2016년 21명에 이어 3년 연속 최다 인원이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시가 젊은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후계농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자격 등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영농자금 및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문 농업 인력

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1981년부터 선정·육성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지자체가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영농비전 등에 대해 1차 심사를 하고, 전문평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이 2차 정밀 검증한 후, 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개인당 국비 2억원씩 지원받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체육관 건립·아시아음식지구 조성 국비 20억 확보

광주시 동구는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는 지역민의 건강 및 여가 장소로 활용될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99억원 중 열악한 재정현편으로 구비 매칭비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구는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

적인 노력 끝에 행정자치부와 광주시로부터 부족재원 15억원 전액을 확보.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남도음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에 소요되는 구비 매칭비 5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시청서 우수중소기업 12곳 '미니 취업박람회'

29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미니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장으로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노무법인 총무,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 취·창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인업체로는 화신산업(주), ㈜삼오텍, 인담인(주), ㈜사산 등 지역우수 중소기업 12개사가 참여해 정·장년층, 경

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85개 일자리를 놓고 현장면접을 한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직업상담사의 맞춤형 구직상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구직 참가자 대상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기초 노동법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광주경제고용진흥원(광주 일자리종합센터)은 업체를 직접 발굴해 구직자와 만남을 제공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문의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061-613-5996). /채희종기자 chae@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키펜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회사 사정상, 싸고 좋은물건,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